

'코로나19' 영향 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교육부 "감염증 상황따라 개학 연기 또 검토될 수도" 도내 각급학교별로 새학기 앞뒤 소득 등 방역 강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일 예정됐던 개학은 같은 달 9일로 일주일 미뤄진다.

이후 개학 연기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다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개학 연기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개학 연기로 휴업일수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겠다"며 "개학이 연기돼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계획을 안내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도 두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교육 현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이석문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에서 군 복무를 하던 A(22)씨가 이날 새벽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A씨와 직접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10명 정도를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A씨가 속한 군부대에 면회를 다녀오며, 또 다른 유치원 교사가 자녀를 데리러 온 같은 부대 소속 군 직원과 접촉한 것을 확인하고

자율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새 학기를 맞은 유아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내 어린이집에 선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전하 또는 책자 안내로 대체하거나 방역 소독을 강화하며 불안감 달기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등홍동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제주도의 협조 요청을 받아 당분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집 행사를 취소하거나 소그룹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제주시 용담동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등원 차량에 타기 전부터 아이들의 발열을 확인하고 교실 바닥과 손잡이, 장난감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대표 '들불·왕벚꽃축제' 취소도, 민간단체 공공건물 행사 사용도 금지

2-3월 행사 줄줄이 재검토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와 왕벚꽃축제 등 도내 모든 행사가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후속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들불축제 취소 결정에 즈음해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주시는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올해 들불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3월 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리던 삼도1동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의 제주왕벚꽃축제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에는 제주시민과 전국의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2-3월에 계획된 시·읍면동 단위 행사 137건 중 47건을 취소 조치했으며, 현재 진행예정이거나

검토중인 행사 89건도 행정 주관 행사인 경우 취소 및 연기를 전면 검토하고 있다. 민간 주관 행사도 관련 부서에서 취소·연기토록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1일 기존 내용보다 강화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3차)에 따라 행정기관 주관행사를 당분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와 설명회, 보고회, 축제, 공연, 교육, 훈련, 시험 등 명칭을 불문해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청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단,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한다.

내부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대체하며, 개최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축소된다.

마을행사 등 민간단체 주관행사는 행정기관 주관 행사에 준해 연기나 취소하며,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관련 부서 등과 사전 협의 후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민간단체 행사 개최 시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체육관, 문화센터 등 공공건물 사용이 금지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꽃 파는 오일장 22일 포근한 날씨속 장이 열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꽃과 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강도살인미수 징역 15년

현금을 찾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금품을 뺏으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B(58·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어 곤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국가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제주시, 지자체 중 최초...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지원

제주시가 가입이 저조한 국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국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험을 들지 않고 자연재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전과인 경우는 1200만원이고 침수인 경우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일반가입자 기준 연 4만 8200원(국가-지자체 2만5300원, 자부담 2만2900원)인 풍수해보험(80㎡기준, 90%보상형)을 가입한 가구가 태풍이나 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시는 보험사로부터 전과인 경우 72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 침수를 당했을 시에는

530만원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시 관내 전체 20만여가구 중 2018년 2.1%, 2019년에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1537가구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을 소유한 호우,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도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10개소 192가구, 재난위험지구(21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1지구) 등 265가구에 대해서는 2순위로 자부담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알작지 해안도로 침하구간 신속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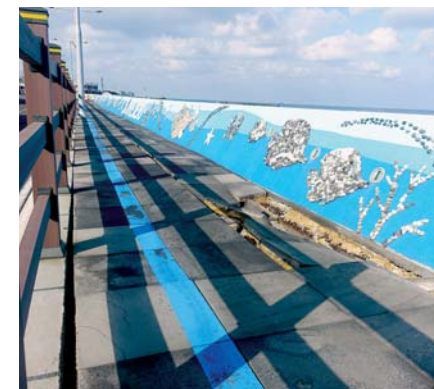
제주시 "합동점검할 것"

속보=제주시는 내도동 알작지 해안도로 구간이 지반 침하가 발생(본보 2월 20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알작지 일대 서부해안도로 사업은 지난 2012년 10월 착수해 2018년 8월까지 총사업비 83억원(공사 58억원, 보상비 26억원)을 투입, 현사마를 원장교-외도교간(내도동 알작지 일원) 연장1.15km(폭15m) 구간을 개설했다.

이번 침하 발생 구간은 강풍과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해안면 파력에 의한 유실로 인해 인도부 지반 침하(연장50m, 폭2m)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구간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에 시설



지반이 침하된 알작지 일대 해안도로.

물의 안정성 검토 및 복구방법 제시와 함께 시공사에 대해서도 하자 복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어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태양광 발전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결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usolar.co.kr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